

임상사목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의 전망



김 중 호

〈가톨릭의대 교목실장〉

얼마전 한국 주교단에서 특수사목의 한 분야로써 시안을 제출하라고 하였을 때 본인은 앞으로 가톨릭병원의 사목활동 중에서는 Hospice 활동과 임상사목 교육(C.P.E)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종봉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Hospice 활동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Hospice 활동은 육체적인 치료이외에 영신적, 정신적, 종교적으로 환자를 도와 줌으로써 환자 자신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生の 완성이라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Hospice 활동은 환자가 평화로운 가운데 품위있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Hospice 활동은 의사, 간호원, 사회사업가, 원목신부, 수녀 등이 그룹으로 항상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한편 임상사목 교육은 원목을 맡은 신부나 수녀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환자의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함을 말한다.

오랜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원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원목활동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부수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어 왔다. 병원 당국과 의사, 간호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목활동에 참여하는 성직자들 자신도 원목활동이 의료인들의 치료활동을 돕는데 그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환자의 치료는 “全人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원목활동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인간은 육신적 존재와 영신적 존재로만 간단히 구분할 수 없고 감정, 지성, 신앙 갈등 등이 복잡하게 혼합되고 계속 영동적으로 움

직이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도 이와같은 인간 문제를 소홀히 하면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원목과 원목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50여년 전이다. 50년 전에 Boisen 목사는 정신분열증으로 2년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병원을 찾아오는 원목들이 너무 미숙하고 환자의 고통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카운셀링 기술도 부족하여 환자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한 간호감독은 자신이 중병으로 입원한 동안 병원 종사자들의 태도가 환자의 고통과 요구는 전혀 도외시하고 너무도 기계적으로 치료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현대에는 병원의 원목은 한 전문분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많은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치듯이 병원 사목자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목활동을 위한 교육은 이론적인 것보다 체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교육에서는 병원에 있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휴먼·도큐먼트(human document)라고 한다. 병상에서 만나는 고통중에 있는 사람 하나 하나가 원목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인 셈이다.

임상사목 교육이 실시된 후 50년이 지나면서 신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학문이 되었고 병원 종사자들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 분야를 발전시킨 것은 개신교의 목사들이었지만 점차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회, 유대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원목을

담당하는 성직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의식이 생겼고 또한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A.C.P.E., U.S.C.C. 라는 두 단체가 원목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자격을 주기 시작했다.

임상사목 교육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목은 고통중에 있는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내적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감정적, 영신적 문제를 찾아내어 환자의 인간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역점을 둔다.

둘째, 원목이 유효적절한 카운셀링의 방법을 숙달하도록 교육시켜 인간접근과 대화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병원에 있는 의료진, 원목종사자들이 치료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과 함께 협조하여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사목진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본인이 교육을 받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성 요셉 병원은 인가된 전문가(supervisor)를 두고 그의 지도아래 매일 8시간의 강의와 실습을 강행하며 주 5일간 교육을 시키고 5일마다 1회씩 야간 당직을 하여 야간환자들을 돌보게 한다.

교육방법은 환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등 모든것을 리포트로 작성, 제출하여 계속 분석하며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원목자의 기능을 예민하게 만들어 준다. 원목교육의 주요부분은 환자와 함께 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고독감을 없애주며 내적인 평화속에 병이 치료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교육을 받는 동안 교회를 대표한 성직자들 자신이 예수께서 고통과 아픔중에 있는 이들을 만나시는 복음의 장면들을 병원에서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결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는 복음에서의 예수님과 고통받는 이들과의 만남을 병원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외아들의 죽음을 당한 나인의 과부(루가 7장 11 ~ 17절)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오빠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하며 예수를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타(요한 11장 17~37절)를 병원 복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정형의과 병상에 pin을 박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병원의 어디에서든지 성서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신학은 해답을 제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신학(ministry of presence)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고통받는 이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없고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전인치료의 최종 목적은 병을 의학적으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로 하여금 내적인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죽음에 직면한 환자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함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하여 진실로 해방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맛보도록 원목자는 함께 고통을 공감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임상사목 교육을 거쳐 양성된 전문직을 가진 원목자들이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전인치료에 주력할 때 교회의 한 특수사목의 분야로써 밝은 전망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병원 정책자들의 선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좀 더 고차적인 주교회의나 신학교육과 수도자교육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로써 임상사목 교육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